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2009년 11월 둘째주

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



한국콘텐츠진흥원

What's Happening in Music Industry? [2009년 11월 둘째주]

11월 둘째주 음악산업 동향

- 네오위즈벅스, 상장이후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 애플, 디지털 음원에 이어 영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영상서비스 계획 발표
- 英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가 정품 콘텐츠 구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 올해의 헬로루키는 누구? : 11월 14일 한국대중음악축제 개최

콘텐츠 목차

1. 소비자 동향

1-1. 2009년 10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

2. 산업 동향

2-1. 네오위즈벅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2-2. MS와 애플, 웹을 통한 TV 방송 콘텐츠 전송 실시

2-3. 청소년 유해 판정곡 가요 37곡 고시

3. 기술 동향

3-1. We7의 하드웨어와 Spotify의 소프트웨어의 파급력

3-2. 애플, 새로운 음악 영상 서비스 계획

3-3.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 Qtrax, 중국 및 아시아시장 진출

4. 정책 동향

4-1. '한국대중음악축제 - 2009 올해의 헬로루키'

4-2. 11월의 루키뮤직어워드 수상자 선정

4-3. 국제음악견본시 'MIDEM 2010' 참가 뮤지션 모집

5. 해외 동향

5-1. 아시아 국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5-2. 비틀즈 음원 판매한 블루비트(BlueBeat), 서비스 금지 결정

5-3. 英, 불법 다운로드와 정품 콘텐츠 구입 관계 조사

5-4. EMI, 라이브 레코딩 및 인스턴트 음악서비스 Abbey Road Live시작

※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

1

소비자 동향

1-1. 2009년 10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

순위	멜론(10.25-10.31)		도시락(10.26-11.1)		엠넷(10.26-11.1)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1	—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 리쌍	↑1	눈물아 안녕 - 아이비	—	Love Like This - SS501
2	↑8	눈물아 안녕 - 아이비	진입	YOU AND I - 박봄	진입	부른다 - 서인국
3	—	Ring Ding Dong - 샤이니	진입	부른다 - 서인국	↓1	Ring Ding Dong - 샤이니
4	↓2	Chocolate Love - 소녀시대	↓3	Ring Ding Dong - 샤이니	진입	YOU AND I - 박봄
5	↑1	Where U At - 태양	↑44	못된 여자 II - 원투	↑14	못된 여자 II - 원투
6	↓2	TTL - 티아라, 초신성	↓2	잊지 말아요 - 백지영	↓3	눈물아 안녕 - 아이비
7	진입	부른다 - 서인국	↓4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 리쌍	↓2	잊지 말아요 - 백지영
8	진입	YOU AND I - 박봄	↓1	Love Like This - SS501	진입	그놈 목소리 - 씨야
9	↓4	사랑비 - 김태우	↑14	심장을 놓쳐서 - 환희	↓5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 리쌍
10	↑64	못된 여자 II - 원투	↓5	Chocolate Love - 소녀시대	↑1	심장을 놓쳐서 - 환희
11	↓4	사랑한 후에 - 박효신	진입	Good Bye - M To M	진입	Sign - 브라운아이드걸스
12	진입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 - 거미	↑1	보란듯이 - 아이비	진입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 - 거미
13	↑19	Love Like This - SS501	진입	Sign - 브라운아이드걸스	↓6	Chocolate Love - 소녀시대
14	↓6	주르륵 - 휘성	↓8	Where U At - 태양	↓8	Where U At - 태양
15	↑35	심장을 놓쳐서 - 환희	진입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 - 거미	진입	Good Bye - M To M
16	↓7	우리 헤어지자 - 이승기	진입	실화 - 린	↓8	TTL Listen 2 - 티아라, 초신성
17	↓2	TTL Listen 2 - 티아라, 초신성	↓9	TTL - 티아라, 초신성	진입	러브레터 - FT.triple
18	↓6	죽일 놈 - 다이나믹듀오	↓9	주르륵 - 휘성	↓1	보란듯이 - 아이비
19	↓8	Muzik - 4minute	진입	Touch Me - 아이비	↓7	사랑비 - 김태우
20	↓6	라차타 - f(x)	↓8	사랑비 - 김태우	↓2	Oh Yeah - 엠블랙

('09.10월 4주차 멜론, 도시락, 엠넷)

순위	벅스(10.22-10.28)		싸이월드(10.26-11.1)		소리바다(10.25-10.31)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전주 비 변동	곡명 - 아티스트
1	↑18	눈물아 안녕 - 아이비	진입	YOU AND I - 박봄	↑4	눈물아 안녕 - 아이비
2	진입	심장을 놓쳐서 - 환희	진입	부른다 - 서인국	↑126	못된 여자 II - 원투
3	진입	못된 여자 II - 원투	↓1	잊지 말아요 - 백지영	↑48	심장을 놓쳐서 - 환희
4	↑27	Love Like This - SS501	↓3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 리쌍	↓1	Ring Ding Dong - 샤이니
5	↓2	Ring Ding Dong - 샤이니	—	못된 여자 II - 원투	↑13	Love Like This - SS501
6	↓4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 리쌍	↓3	Ring Ding Dong - 샤이니	↓5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 리쌍
7	↓6	Where U At - 태양	↓1	나는... - MC몽	↓1	Chocolate Love - 소녀시대
8	↓4	Chocolate Love - 소녀시대	↓4	눈물아 안녕 - 아이비	진입	YOU AND I - 박봄
9	↑38	보란듯이 - 아이비	↓2	죽일 놈 - 다이아믹듀오	↑47	웃어 - 마이티마우스
10	↓5	TTL Listen 2 - 티아라,초신성	진입	말도 없이 - 박신혜	진입	그 놈 목소리 - 씨야
11	↓3	너 정말이니 - 럼블피쉬	↓2	Chocolate Love - 소녀시대	진입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 - 거미
12	진입	웃어 - 마이티마우스	진입	What A Girl Wants - 4minute	↓4	TTL - 티아라, 초신성
13	↓4	사랑이라서 - 임재범	진입	Young Love - 서인국	진입	부른다 - 서인국
14	↓7	내 이름 부르지마 - 이수영	진입	Love Of Iris - 신승훈	↓12	Where U At - 태양
15	↓9	주르륵 - 휘성	—	365일 - 알리	↓4	사랑비 - 김태우
16	↓2	사랑비 - 김태우	진입	아름다운 이별 - 서인국	↑20	보란듯이 - 아이비
17	진입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 - 거미	진입	여자는 나쁜남자를 좋아한다 - 디셈버	↓13	너 정말이니 - 럼블피쉬
18	진입	New Celebration - 린	↓7	사랑비 - 김태우	↓11	나는... (Featuring IVY)
19	↓6	헤어질 거 같애 - 박지현	↓11	Love Like This - SS501	↓7	TTL Listen 2 - 티아라,초신성
20	↓5	나는... - MC몽	↓2	Honesty - Beyonce	진입	Good Bye - M To M

('09.10月 4주차 벅스, 싸이월드, 소리바다)

- 슈퍼스타의 차트 강타, 서인국과 2NE1의 박봄이 발매 동시 상위권 진입
 -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한 서인국의 '부른다'가 발매 직후 상위권으로 진입하며 차트 강타
 - '부른다'는 멜론 7위, 도시락 3위, 엠넷 2위, 싸이월드 BGM 차트 2위로 진입하며 높은 관심과 인기를 증명
 - 2009년의 가장 주목받은 신인인 2NE1의 멤버 박봄이 발표한 솔로곡 'You and I'도 발매와 동시에 차트 상위권으로 진입하며 인기를 입증

- 'You and I'는 싸이월드 BGM차트 1위, 도시락 2위, 멜론 8위, 엠넷 4위를 차지하며 차트 진입
- 이 외에도 거미의 '이별은 사랑 뒤를 따라와'(멜론 12위, 엠넷 12위, 벅스 17위, 소리바다 11위), 브라운아이드걸스의 'Sign'(엠넷 11위, 도시락 13위), 엠투엠의 'Good Bye'(도시락 11위, 엠넷 15위, 소리바다 20위), 씨야의 '그놈 목소리'(엠넷 8위, 소리바다 10위) 등 신보의 발매 직후 상위권 대거 진입으로 차트에 큰 변동
- 각 차트의 1위 곡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리쌍, 멜론), '눈물아 안녕'(아이비, 도시락, 벅스, 소리바다), 'Love like this'(SS501, 엠넷), 'You and I'(박봄, 싸이월드) 등으로 하나의 히트곡이 전 차트를 석권했던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임
- 절대 강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춘추전국시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산업 동향

2-1. 네오위즈벅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 네오벅스 위즈, 코스닥 상장 후 첫 실적발표
 - 네오위즈벅스, 3분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액 83억원, 영업이익 13억원, 경상이익 14억원, 순이익 14억원을 기록
 - 전분기 대비 매출액 11.02% 증가했으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10.82% 성장, 동시에 영업이익률 16%를 달성하며 질적 성장세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표1> 2009년 3분기 실적

[단위: 백만]

구분	'09 3/4분기	'09 2/4분기	전분기 대비
매출액	8,303	7,479	11.02%
영업이익	1,306	1,207	8.20%
경상이익	1,414	1,276	10.82%
당기순이익	1,414	1,276	10.82%

- 음악포털 벅스는 3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라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가운데 '월정액 DRM-Free' 상품을 주축으로 고객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노력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 국내 최초 정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
 - 기획, 개발, 운영 전 부문을 자체 운영하며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 이는 곧 업무 효율을 통한 매출증대로 이어졌다는 평

- 벅스는 4분기 후 국내 단독 외국 직배영화 온라인 합법서비스를 선보이며 온라인 영화다 운로드 시장을 선점, 음악 외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며 콘텐츠 포털 플랫폼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이뤄나갈 계획

2-2. MS와 애플, 웹을 통한 TV 방송 콘텐츠 전송 실시

- ‘윈도 7 미디어센터를 통한 콘텐츠 서비스 협약식’
 - 마이크로소프트(MS)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는 11월 2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MS와 iMBC, 중앙일보, EBS, CJ 오쇼핑 등 4개 방송사간의 '윈도7 미디어센터를 통한 콘텐츠 서비스 협약식'을 개최
 - 발머 CEO는 양방향성 광고 등의 차세대 콘텐츠가 미디어센터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힘
- 윈도 7의 미디어 센터를 통해 이용자는 PC에서 웹사이트 접속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도 방송사 콘텐츠를 실시간 또는 VOD(주문형비디오) 방식으로 시청 가능
 -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윈도7 이용자들은 4개 방송사 콘텐츠를 VOD로 볼 수 있게 됨
 - MS는 지난 22일 윈도7을 전 세계에 출시하면서 각국 방송사와 프로그램 공급 협의를 진행 중으로, 미국의 경우 이미 CBS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함
 - MS의 시도는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된 미디어센터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TV(IPTV)를 구현, 윈도7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MS와 제휴한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유통시키기 위한 전략이어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데다, 관련 기능이 강화되고 급속히 발전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미디어센터의 시장성을 미지수로 평가하고 있음
- 애플은 아이튠스를 통해 2010년 초 월정액 30달러의 인터넷TV방송서비스를 준비 중
 - 애플은 ‘오버더톱’ 으로 불리는 이 인터넷방송서비스용 단말기를 자사의 애플TV박스나 태블릿/슬라이드기기 같은 특정 하드웨어에 한정하지 않는 대신 자사의 아이튠스SW와 1억 명의 고객을 확보한 아이튠스 스토어를 통해서 제품을 사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애플의 서비스는 고객들이 인터넷 상에서 영화를 내려 받아 보고, 그것도 원하는 내용만 선택토록 해 기존 케이블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 tv방송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 공급원을 찾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면 애플의 서비스는 기존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시장판도 변화도 가능하다고 예상됨

2-3. 청소년 유해 판정곡 가요 37곡 고시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 판정곡 37곡 고시

- 빅뱅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중 수록곡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언 드림(Korean Dream)'도 포함
 - 이외에도 슈프림팀의 '홀리건(Hooligan's Anthem)' 등이 포함
- 청소년 유해판정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CD에 붙여 판매해야하며, 오후 10시 이전에는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음
-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 수정 필요
 - 이번 결정은 11/10일부터 효력 발생

3 기술 동향

3-1. We7의 하드웨어와 Spotify의 소프트웨어의 파급력

-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We7, 음악 데이터 매핑 서비스 오픈
- 영국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We7이 히트 맵스(Heat Maps)라는 음악 데이터 매핑 서비스를 오픈
 - 히트 맵스는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노래, 앨범과 음악 장르를 지도 형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지리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히트 맵스는 음반 레이블들의 맞춤형 마케팅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아티스트 선호도와 아티스트 투어 상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움
- 영국의 또 다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Spotify가 P2P 공유 문제 위해 노력
- 영국의 음원 파일 공유 이용자 중 3분의 2가 Spotify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게 된다고 응답
 - MoneySupermarke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합법적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들의 등장으로 음반 판매는 감소시키고 있으나 건전한 음원 판매시장 정착에 기여
 - 기존의 음원 다운로드 대부분 냅스터를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였으나 지금은 그 비율이 27% 정도에 머물고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은 iTunes나 Amazon을 통한 합법 다운로드 이용
- 영국 국민들의 음원 이용방식이 점차 합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12%정도의 이용자가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 그 중 20대 이하의 이용자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3월에 오픈한 Spotify는 1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매 월 40,000명의 이

용자가 가입하며 규모가 커지자 적당한 수익모델이 창출되지 않아 결국 2008년 9월, 음원 재생 중간에 광고를 넣는 방식을 도입

- We7과 Spotify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상생의 길을 모색 중
 - 히트 맵스 서비스를 오픈한 We7은 Spotify와 자사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상의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
 - We7은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 이용자들이 하드웨어를 통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
 - Spotify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을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도하면서 We7과 함께 영국 음원 시장의 내/외실을 견고히 다져 나가고 있음

3-2. 애플, 새로운 음악 영상 서비스 계획

- 애플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 테마 영상 서비스를 아이튠즈에서 제공할 계획
 - 애플은 음악을 테마로 한 영상 서비스를 아이튠즈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 8일부터 22일 사이에 오픈 계획
 - 현재 Kings of Leon의 콘서트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영상은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비스 할 예정
- 음악을 테마로 한 영상 서비스는 DVD 발매 전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빌보드에 따르면 애플은 음악을 테마로 한 영상과 음악 영화 페이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준비 중
 - DVD 형태로 발매하기 전에 이용자들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에어로스미스의 "The Song Remains the same", U2의 "Rattle and Hum" 그리고 존 레논의 "John Lennon Imagine" 등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주력
- MP3, iTunes LP 디지털 음원 서비스에 이어 영상 서비스로 영역 확장
 - iTunes LP라는 새로운 디지털 앨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는 애플은 기존 개별 음원 판매 중심의 수익 한계를 벗어나 앨범 판매에서도 수익 창출
 - RIAA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DVD 판매율이 54.7퍼센트나 하락했다고 발표, 애플의 음악 영상 서비스가 DVD 판매를 활성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애플의 음악 영상 서비스는 음원과 앨범에서 벗어나 영상도 음원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장

3-3.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 Qtrax※, 중국 및 아시아시장 진출

- Qtrax, Baidu와의 제휴로 중국 시장 진출
 - 중국 최대 검색엔진 Baidu는 오는 12월 7일부터 온라인 음악 사업자 Qtrax와의 제휴를

- 통해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11/2)
- Baidu에서 아티스트나 악곡을 검색할 경우 Qtrax의 다운로드 허용 버튼으로 연결되어 해당 곡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메인 페이지에서의 검색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Baidu 내 엔터테인먼트 페이지 Qian Qian Music Online에서 Qtrax로 연결됨
 - 단, Qtrax와 로열티가 체결된 곡에 한해서 제공됨
- 광고기반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내세운 Qtrax는 이용자가 곡을 다운로드 받거나 휴대 단말에 전송하기 위해 곡을 변환할 때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에 게재되는 광고로 수익을 얻음
- Qtrax는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난 4월 미국에서 90일 간의 시범서비스를 거친 Qtrax는 11월 5일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Klepfisz CEO는 올해 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영국에서는 2010년 2월, 미국에서는 2010년 1분기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일부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는 무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Qtrax의 Biz 모델이 충분한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함
- 실제로 Qtrax는 플레이되는 모든 곡에 매번 로열티를 지불하는 반면, 수익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거나 휴대기기에 전송하기 위해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광고에서만 발생
 - 이에 따라 Qtrax는 음악 파일 내에 음성 광고를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 Qtrax : 미국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P2P방식의 광고 기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4대 메이저 음반사와의 협의 하에 합법적 음원 제공(<http://qtrax.com/>)

4 정책 동향

4-1. '한국대중음악축제 - 2009 올해의 헬로루키' (11/14, 올림픽 펜싱경기장)

- 일시 및 장소 : 11/14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EBS 스페이스 공감
-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2009'의 결산 무대
 - 헬로루키 선정팀 노리플라이(No Reply), 데이브레이크(Daybreak), 박주원, 아폴로 18(Apollo 18), 좋아서하는밴드, 텔레파시(Telepathy), 흠(Heum)의 결선 무대, 2009년 최고의 헬로루키를 선발
 - 이승환, 김수철, 브로콜리너마저, 검정치마, 뜨거운감자, 피아, 슈프림팀 및 2008 헬로루키 주인공들인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한음파의 축하 공연 예정

※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 '우수 인디뮤지션 발굴 및 공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09.4월부터 10월까지 동영상 공모에 참여했던 455팀 가운데 1차 선발을 거쳐 선정된 72개 팀 중 공개오디션을 통해 최종 22개 팀의 헬로루키 배출, 선정된 팀들에게는 EBS '스페이스 공감 이달의 헬로루키' 방송 출연, 국내 음악 페스티벌 출연, '한국대중음악축제' 출연
- 2009 올해의 헬로루키의 후보자격 부여, 온오프라인과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 지원

4-2. 11월의 루키뮤직어워드 수상자 선정

- 11월의 루키뮤직 어워드 수상자 선정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11월의 신인 음반 : 'SHU-I first single'의 타이틀곡 'Bomb Bomb Bomb'
 - 11월의 인디뮤지션 : 데이브레이크 (외 각스, 포니, 박주원이 11월의 헬로루키로 선정)
- 신인 음반 부문에 선정 시 SBS-TV '인기가요 파워루키' 2회 출연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기회가, 인디뮤지션 부문에 선정시 EBS '스페이스 공감 헬로루키' 출연 기회 및 네이버 오늘의 뮤직 등 온라인 홍보 기회 제공

4-3. 국제음악견본시 'MIDEM 2010' 참가 뮤지션 모집

- 국제음악견본시인 'MIDEM 2010'에 참가할 국내 대중음악 가수 모집
 - 2010.1월 프랑스 칸(Canne) 개최 예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한국 대중음악 쇼케이스를 마련, 국내 대중음악 소개 계획
- 지원 대상 :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대중음악 관계자로 11/16일까지 참가접수
 - 선정 시 해외 음반사와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지원

5 해외 동향

5-1. 아시아 국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 2008년 뉴질랜드 의회는 '삼진아웃제'의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 개정법'을 통과시킴
 - 저작권 보호와 국민 기본권 확보라는 상반되는 주장을 딛고 반대론자의 주장을 수용한 형태의 개정법에 대한 수정안을 공표함
 - 이는 한국의 삼진 아웃제 운영에 참고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 2009년 5월 13일,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 No 47/2009/ND-CP'를 공표
 - 법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시 최대 5억 VND(한화 약 3천 5백만원)의 벌금, 영업정지 등을 부과 할 수 있게 됨
 -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태국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시도
 - 국제적 조직 범죄로 이뤄지는 태국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 및 정부의 세수 손실 야기
 - 태국 상무부 차관은 돈 세탁 방지법에 따라 돈 세탁 행위의 기본 요소에 지적 재산 침해 행위를 추가하기 위해 '국립 지적 재산 침해 억제 위원회' 의장과 협의
 - 태국 문화부 장관은 2008년 8월 개최된 시청각, 비디오 콘텐츠 산업 관계자 미팅에서 해적판 상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향후 시장이나 쇼핑몰에서 지적재산 침해 사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5-2. 비틀즈 음원 판매한 블루비트(BlueBeat), 서비스 금지 결정

-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이 2009년 11월 7일, 웹사이트 블루비트 서비스 금지 결정
 - 웹사이트 블루비트는 최근 비틀즈 MP3음원을 곡당 25센트에 판매한 혐의로 EMI 캐피틀 레코드와 US 레이블 그룹에 의해 소송 당함
 - 비틀즈 카탈로그는 비틀즈의 첫 디지털 앨범으로 USB 형태로 2009년 12월부터 판매 예정, 미국 시장에서 3만대 한정 판매되며 판매가는 279.99달러(약 33만원)
- 블루비트는 판매된 음원들이 비틀즈 음원 원곡이 아닌 커버곡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
 - 블루비트가 곡당 25센트에 판매한 비틀즈의 음원은 비틀즈가 실연한 것이 아닌 다른 뮤지션이 커버곡으로 부른 형태의 디지털 재생산 음원이라고 반박

- 또한 블루비트가 판매한 디지털 음원들은 ‘모조 어쿠스틱’이라는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져 오리지널 버전과 사운드가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2009년 11월 5일 목요일 재판 결과에서 블루비트 유죄 판결
 - EMI측 변호사는 EMI측이 보호하고 있는 여러 음반들을 무단으로 복사하려고 한 의도가 충분히 저작권 문제에 관련될 수 있다고 주장
 - 게다가 블루비트 웹사이트 상에서 발매한 곡의 제목 대부분이 비틀즈 원곡의 제목과 모두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봄
 - 블루비트 변호사 측은 음원 시장에서 전혀 다르게 레코딩된 음악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
 - 저작권법 114항에 의거했을 때 모방이나 가공은 사운드 레코딩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블루비트의 입장 전달
- 비틀즈 원곡 관련 업체들과 블루비트 간의 법적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캐피톨 레코드 변호사는 블루비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
 - 블루비트는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녹음한 음원이기 때문에 새롭고 독립적인 사운드 레코딩이라고 주장
 -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비틀즈 리마스터 USB앨범의 발매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5-3. 英, 불법 다운로드와 정품 콘텐츠 구입 관계 조사

- '09.10월 한달 간 영국의 민간 리서치기관인 데모스(DEMOS)가 18~50세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다운로드가 정품콘텐츠 구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음원 불법 다운로드들은 1년간 정품음원을 구입하는 데 77파운드(약 15만원)를 지출하는 반면, 불법 다운로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33파운드(약 6만4000원)를 지출함
 - 또한 불법 다운로드 중 83%는 “불법 다운로드를 받기 전보다 더 많은 앨범을 구입했다”고 답했으며, 42%는 “음악을 구입하기 전에 음악이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응답
 - 특히 조사자 중 3분의 2정도는 저렴하고 간편한 음악서비스가 생긴다면 합법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함
- 처벌 위주의 법 제정보다 콘텐츠 가격 합리화 시급
 - 영국의회, 11월 말 발표할 ‘디지털경제법안(The digital economy bill-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이트와 인터넷 계정을 일시 봉쇄하는 내용의 법률)’ 추진 중

- 이번 조사에 따르면 단순히 불법 파일 공유자를 단속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콘텐츠 가격의 합리화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5-4. EMI, 라이브 레코딩 및 인스턴트 음악서비스 Abbey Road Live 시작

- 콘서트 라이브 음원 및 영상을 즉시 판매하는 'Abbey Road Live', 북미, 유럽 먼저 개시
 - 콘서트에 참여했던 팬들에게 라이브 콘서트 실황을 좋은 음질로 녹음하여 콘서트 종료 후 수 분만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Abbey Road Live' 서비스 시작
 - 'Abbey Road Live'서비스는 라이브 콘서트 현장에서 스태프가 녹음한 음악을 마스터링 하여 라이브 종료 후 몇 분 안에 판매를 개시하는 서비스로 라이브 음원과 영상은 DVD, USB 메모리, 컴퓨터, 휴대전화로 디지털 배급 등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임
 -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 음원 및 영상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
- Abbey Road Live 서비스는 유명 음악 스튜디오 'Abbey Road Studios'의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며, 초기에는 북미와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애비로드 라이브 제작팀은 세계적 수준의 음악 및 영상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
 - EMI는 2004년에 설립된 자회사 'Mute Records'가 이미 라이브 음원을 그 자리에서 편집해서 판매하는 서비스 'Live Here Now'의 성공모델을 참조하여 서비스를 확장한 Abbey Road Live를 선보임
 - Live Here Now를 통해서 '블러', '디페시모드', '프란츠 페르난드', '버밍햄 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의 라이브 음원을 판매한바 있음
 - 블러의 2009년 재결성 하이드파크 공연의 경우 참석 관객 중 10%가 라이브 레코딩을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가격정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실황의 경우 콘서트 직후 £15(약30,000원)에 판매한 바 있음
- 콘서트 이후 라이브 음반제작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팬들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통해 콘서트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며 라이브콘서트를 녹음하여 수익창구 다원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1-1. 2009년 10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

엠넷 www.mnet.com

멜론 www.melon.com

도시락 www.dosrak.com

벅스 www.bugs.co.kr

싸이월드 www.cyworld.com

소리바다 www.soribada.com

2-1. 네오위즈벅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헤럴드경제, 09/11/07, 네오위즈벅스 3분기 영업이익 13억원

디스이즈게임닷컴, 09/11/06, 네오위즈벅스, 코스닥 상장 이후 첫 실적발표

엑스포츠뉴스, 09/11/06, 네오위즈벅스, 코스닥 상장 이후 첫 실적발표

2-2. MS와 애플, 웹을 통한 TV 방송 콘텐츠 전송 실시

아이디지뉴스, 09/11/02, 미디어센터, 차세대 콘텐츠 구현할 것"

지다넷코리아, 09/11/04, 아이튠스, 미 케이블TV 혼든다

2-3. 청소년 유해 판정곡 가요 37곡 고시

서울경제신문, 09/11/03, 지드래곤 솔로 앨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

이데일리, 09/11/03, 지드래곤 음반,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

3-1. We7의 하드웨어와 Spotify의 소프트웨어의 파급력

Music Ally, 09/11/02, we7 launches Heat Maps for label partners

Billboard Biz, 09/11/02, We7 Launches Music Data Mapping Service

Strategy Eye, 09/11/06, Using Spotify helps filesharers quit the habit

Telegraph, 09/11/06, Spotify 'helps curb music piracy'

Guardian, 09/10/08, We7 chief helps calculate those elusive Spotify numbers

3-2. 애플, 새로운 음악 영상 서비스 계획

TUAW, 09/11/04, Apple launches Music Movies on iTunes

PC World, 09/11/04, Five Classic Apple Marketing Tactics That Lock You In

Billboard Biz, 09/11/03, Apple Unveils Music-Themed Movie Push

Apple Insider, 09/11/04, Apple launches iTunes Music Movies with exclusive content

3-3. 광고 기반 무료 음악 서비스 Qtrax※, 중국 및 아시아시장 진출

Reuters, 09/11/02, Qtrax Announces Partnership With Baidu

MusicWeek, 09/11/03, Qtrax partners with Baidu in China for legal music searches

4-1. '한국대중음악축제 - 2009 올해의 헬로루키'

국정포털, 09/11/09, 한국대중음악축제 - 2009 올해의 헬로루키 개최

연합뉴스, 09/11/09, 한국대중음악축제 - 2009 올해의 헬로루키 개최

4-2. 11월의 루키뮤직어워드 수상자 선정

경향신문, 09/11/05, 11월 대중음악 '루키', 데이브레이크·슈아이 선정

4-3. 국제음악견본시 'MIDEM 2010' 참가 뮤지션 모집

아이뉴스, 09/11/09, 국제음악견본시 참가할 대중음악 가수 모집

5-1. 아시아 국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11월 1주차

5-2. 비틀즈 음원 판매한 블루비트(BlueBeat), 서비스 금지 결정

PC Mag, 09/11/06, Judge Blocks BlueBeat Beatles MP3s

Cnet News, 09/11/05, Beatles copyright case down a legal rabbit hole

The Register, 09/11/04, The Beatles go digital, sort of

Los Angeles Times, 09/11/07, Beatles catalog is temporarily banned from music website BlueBeat

5-3. 英, 불법 다운로드와 정품 콘텐츠 구입 관계 조사

세계일보, 09/11/03, "불법 다운로드, 음반 구입 돕는다" 英 연구소 조사

전자신문, 09/11/04, 英 콘텐츠 정품 구매, 불법 다운로드가 더 적극

5-4. EMI, 라이브 레코딩 및 인스턴트 음악서비스 Abbey Road Live 시작

Billboard, 09/11/03, EMI Music To Launch Abbey Road Live

MusicWeek, 09/11/04, EMI targets live recordings

CNET News, 09/11/06, EMI to offer instant concert recordings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콘(www.wecon.kr)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

과장 김도윤(TEL 02-3153-1286 , doyun.kim@kocca.kr)